

미디어교육 참여동기, 만족도와 지속참여의도의 관계 연구

Relationship among Media Education Motivation,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Continuous Participation

양문희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Moonhee Yang(amiene@sangji.ac.kr)

요약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미디어 활용이 증가하면서 학자들과 시청자주권 관련 시민단체들은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렇지만, 미디어 교육의 효과와 참여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디어교육 참여자들의 참여동기가 만족도와 미디어 교육 지속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와 부산의 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활동지향 동기가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교육 지속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미디어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여 시청자의 미디어 교육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미디어교육 | 참여동기 | 만족도 | 지속참여의도 |

Abstract

In the era of digital media era, the importance of media education has been emphasized by both scholars and audience right related organizations. However,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bout the factors may have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media education program.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effect of motivation on both satisfaction and intention of i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urveyed the participants from education program offered by two local media cente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ctivity-oriented motivation had effect on both the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continuous participation.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can be applied to development of the plan for encouraging the continuous learning of media.

■ keyword : | Media Education | Participation Motivation | Satisfaction | Intention to Continuous Learning |

I. 서론

디지털 미디어와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은 우리의 삶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고, 뉴스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가을에 발생한 경주 지역의 지진을 가장 먼저 세상에 알린 것은 국가기관이나 언론사가 아닌 시민들의 소셜미디어(SNS)였다. 반면에, 미국대선에서 드러난 가짜 뉴스 문제는 정보가

* 이 논문은 2014년도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접수일자 : 2017년 05월 04일

수정일자 : 2017년 05월 25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6월 08일

교신저자 : 양문희, e-mail : amiene@sangji.ac.kr

빠르게 전파되고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가 발생시키는 문제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디어의 활용은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것이며, 올바른 미디어 사용의 필요성도 함께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된 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미디어교육이다. 미디어교육은 미디어의 다양한 기능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한편, 미디어의 잘못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1]. 미디어교육의 범위는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에서부터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이해와 비판 능력에 이르는 전반적인 미디어 관련 영역까지 포함한다[2]. 즉, 미디어교육은 올바른 미디어 이해·비판·수용 교육과 주제적인 창조 및 활용교육으로 요약할 수 있다[3].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은 미디어센터의 설립과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00년대 이래 전국에 30개 이상의 미디어센터가 건립되어 미디어 체험과 제작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구 방송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2005년 부산과 2007년 광주에 설립된 대표적인 미디어센터로 미디어교육, 시청자참여프로그램제작교육, (방과 후)학교 미디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4년도 한 해에만 부산은 55,780명, 광주는 63,694명이 이용하였으며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4]. 두 센터는 2015년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통합되었으며, 서울, 인천, 강원, 울산 등의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추가로 설립되었다.

이처럼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기존의 미디어교육 연구는 미디어교육의 중요성과 정책적 함의에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5], 미디어교육의 효과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들이 부족하다. 미디어교육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도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 학습자 등의 학교교육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 효과 연구는 학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특히 미디어교육의 확대를 위해서는 미디어교육 참여자들의 참여의사를 지속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디어교육 참여자들의 참여 동기가 만족도와 교육참여 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청자미디어교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디어교육 참여자들의 참여 동기와 만족도, 교육참여의사의 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참여자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II. 기존문헌 검토

1. 미디어교육 기존문헌

1.1 미디어교육

미디어교육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가장 포괄적이며 현대적인 의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가 제공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메시지 제작방법을 익혀 많은 사람들과 효과적인 소통능력을 기르며, 미디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며, 본질적으로는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인성의 함양을 위한 교육이다”(49쪽)[6].

미디어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미디어교육의 영역을 살펴보면 이해가 쉽다. 미디어교육의 영역은 미디어 수용영역, 미디어 제작영역, 미디어 활용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3]. 첫째, 미디어 수용영역은 미디어 속성의 이해, 미디어 내용의 비판적 이해, 미디어 수용자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며 미디어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다. 둘째, 미디어 제작영역은 미디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특히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관심이 더욱 증대하고 있는 UCC 제작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화의 제작과 편집 등의 제작 기술

등을 교육한다. 셋째, 미디어 활용영역은 미디어 콘텐츠를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사용하고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이 있다.

미디어교육의 참여자 범위도 점차로 확산되고 있다. 유아부터 노년층에 이르는 전생애주기에 미디어교육이 필요하다[6]. 특히, 자유학기제가 시작되면서 학교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담당할 미디어교육교사의 양성도 필요하다. 그러나 미디어교육은 학교교육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역의 미디어센터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특히 중장년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100세 시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미디어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이 밖에도 미디어센터는 저소득층, 다문화, 장애인에 이르는 사회 소외계층 대상의 미디어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1.2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미디어교육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교육의 효과나 참여증진방안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교육의 효과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내용 분석을 통해 미디어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거나[7], 청소년 대상의 미디어교육 효과 연구[5] 정도가 있다. 이육호(2010)는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한 <시민단편드라마제작교실>사례를 분석하였는데, 영화 교육이 상설화되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7].

김용호·정경순·남연주(2012)는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하였다[5]. 구체적으로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 유형(뉴스/라디오/토론/드라마)과 청소년들의 성격유형(외향/내향, 사고/감정)에 따른 미디어 능력(지각/지식, 비판/비평, 이용/상호작용, 제작/구성능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미디어교육 프로그램과 청소년의 성격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교육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방식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참여동기와 만족도, 지속참여의도

미디어교육은 교육 대상자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데, 크게 학교 미디어 교육과 사회 미디어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 미디어 교육은 주로 초중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사회미디어 교육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평생교육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미디어교육의 참여동기와 만족도에 대한 기존 연구가 부족하기에 본 연구는 평생교육 분야의 참여동기와 만족도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고자 한다.

평생교육 분야에서 참여동기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론 틀은 Houle(1961)의 참여동기이론이다. 이 이론은 성인학습자들을 평생교육 참여 동기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8]. 첫째,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에 참여하는 ‘목적지향(goal-oriented) 학습자가 있다. 둘째,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를 중요시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목표로 하는 활동지향(activity-oriented) 학습자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교육 활동 참여를 통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셋째,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에 참여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동기를 지닌 학습 지향(learning-oriented) 학습자가 있다[9][10].

참여동기와 교육만족도의 관계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김종식과 임왕규(2014)는 평생교육 참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참여동기와 교육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목표지향, 활동지향, 학습지향 참여동기가 모두 교육만족도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교육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변주성(2011)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도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 기관(주민자치기관, 대학부설기관, 문화센터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동기(활동지향, 목표지향, 학습지향)가 교육만족도(교육내용, 강사, 직업시설, 학습구성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만족도는 학습 성과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생교육 기관의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하였다[12]. 김나영과 김정은(2011)의 연구는 참여동기(활동지향, 목표지향, 학습지향)가 여성 평생교육참가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학습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요약하면, 노인과 여성 평생교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상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교육만족도도 높아지고, 학습성과도 좋아지는 듯하다.

한편, 참여동기, 만족도와 참여지속의도의 관계는 김철호(2015)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14]. 이 연구는 평생교육 참여동기를 실용적, 오락적, 관계적, 목표지향적 동기로 구분하고, 이들과 만족도(소통, 교수방법, 시설편리, 콘텐츠 품질)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특히, 만족도가 교육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만족도 중에서도 콘텐츠 품질과 소통에 대한 만족이 교육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미디어교육 분야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추론해 보면, 미디어교육의 참여동기가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만족도가 교육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참여동기의 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만족도의 유형도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평생교육분야에서 검증된 Houle(1961)의 참여동기 이론을 미디어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참여동기를 활동지향 동기, 학습지향 동기, 목표지향 동기로 구분하고, 이들이 각각 학습구성원 만족도와 교육내용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1. 참여동기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1-1. 활동지향 참여동기는 학습구성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1-2. 활동지향 참여동기는 교육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1-3. 학습지향 참여동기는 학습구성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1-4. 학습지향 참여동기는 교육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1-5. 목표지향 참여동기는 학습구성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1-6. 목표지향 참여동기는 학습구성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2. 만족도는 미디어교육 지속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2-1. 학습구성원 만족도는 미디어교육 지속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2-2. 교육내용 만족도는 미디어교육 지속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조사 개요

1.1 응답자 분포

본 연구는 광주와 부산의 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 담당자를 통해 설문을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총 125명의 응답 중에서 121명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지역별로 광주센터 61명, 부산센터 60명으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67명(55.4%), 여성은 54명(44.6%)이며, 20대가 48명(39.7%), 30대가 26명(21.5%), 40대가 17명(14.0%), 50대가 11명(9.1%), 60대가 9명(7.4%), 70대가 10명(8.3%)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고졸이하가 13명(10.7%), 대재/중퇴가 32명(26.4%), 대졸 60명(49.6%), 대학원 이상이 16명(13.2%)이었다.

2. 주요변인 측정

2.1 미디어교육 참여동기

참여동기는 변주성(2011)이 Houle(1961)의 참여동기를 도자기 교육에 맞게 변형시킨 항목을 활용하였고, 모두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전혀 아니다~5=매우 그렇다). 먼저, 활동지향동기는 '여가 시간을 의미있게 사용하고자 참여하였다[활동]', '새로운 사람을 사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참여하였다[활동2],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 무엇인가 새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 참여하였다[활동3]의 세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학습지향 동기는 ‘영상 자체에 대한 관심과 흥미 때문에 참여하였다[학습1], ‘지속적인 자기발전을 위해 참여하였다’ [학습2], ‘다양한 영역의 지식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참여하였다[학습3]의 세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목표지향 동기는 ‘영상관련학과 진학 또는 영상관련 취업을 위해 참여하였다[목표1], ‘진로확대나 창업 등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참여하였다[목표2], ‘영상 관련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 참여하였다[목표3]의 세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2.2 미디어교육 만족도

만족도는 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의 참여 후에 느끼는 만족도로 정의하며 모두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 전혀 아니다~5=매우 그렇다). 기존의 연구[12]의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우선, 교육내용만족도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교육내용은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교육내용1], ‘이 기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내용이 제공되고 있다[교육내용2], ‘교육내용이 나의 학습목표와 일치하고 있다[교육내용3],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내용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교육내용4]의 네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학습구성원 만족도는 ‘동료들에게 작업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학습구성원1], ‘동료들과 작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학습구성원2], ‘동료들로부터 일체감이나 동료의식을 느끼고 있다[학습구성원3]의 세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2.3 미디어교육 지속참여의도

지속참여의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관의 교육을 추천하고 싶다[의도1], ‘앞으로도 이 기관의 영상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다[의도2]의 2개 항목을 5점 척도(1=전혀 아니다~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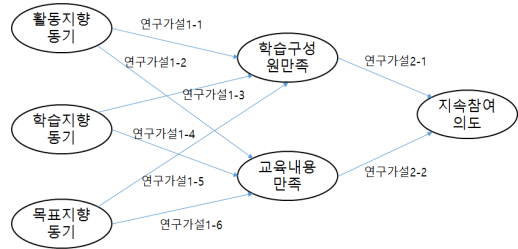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V. 연구결과

1. 요인분석

참여동기 항목에 대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결과, 아이겐 값 1 이상을 기준으로 참여 동기는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총 설명변량=67.659%). KMO=.74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chi^2=335.214$, $df=36$, $p<.001$) 결과 모두 적합하였다.

표 1. 참여동기 요인분석

측정항목	요인				
	1	2	3	α	
활동 지향 동기	활동1	.742	.247	.077	.772
	활동2	.821	.113	.163	
	활동3	.814	.163	-.055	
학습 지향 동기	학습1	.190	.770	.173	.752
	학습2	.271	.779	.029	
	학습3	.147	.822	-.045	
목표 지향 동기	목표1	.092	.002	.915	.843#
	목표2	.127	.100	.897	
	목표3	.493	.236	.231	
아이겐 값		2.286	2.040	1.763	
설명변량		25.401	22.670	19.587	

[목표1]과 [목표2]의 신뢰도 계수

[요인1]은 활동지향동기를 측정하는 3개 항목, [요인2]는 학습지향동기를 측정하는 3개 항목이었다. 목표지향동기는 인자적체치 .60이상의 기준에 부합한 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만족도는 2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총 설명변량=78.185%). KMO=.77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chi^2=534.038$, $df=21$, $p<.001$) 결과 모두 적합하였다. [요인1]은 교육내용만족도를 측정하는 4개 항목, [요인2]는 학습구성원 만족도를 측정하는 3개 항목이었다.

표 2. 만족도 요인분석

측정항목		요인	1	2	<i>a</i>
교육 내용 만족도	교육내용1		.877	.126	.882
	교육내용2		.866	.094	
	교육내용3		.802	.167	
	교육내용4		.853	.150	
학습 구성원 만족도	학습구성원1		.149	.917	.889
	학습구성원2		.159	.937	
	학습구성원3		.121	.852	
아이겐 값			2,953	2,520	
설명변량			42,189	35,996	

참여동기와 만족도 측정항목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 값을 확인한 결과, 모두 .70이상으로 나타나 기준에 부합하였다([표 1][표 2] 참고). 또한 구성개념들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만큼 높은 상관관계는 없었다.

표 3.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구성개념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1.활동지향동기	1.000					
2.학습지향동기	.449**	1.000				
3.목표지향동기	.215*	.147	1.000			
4.교육내용만족도	.292**	.275**	-.065	1.000		
5.학습구성원만족도	.512**	.236**	.173	.308**	1.000	
6.참여의도	.296**	.299**	-.095	.631**	.357**	1.000
평균 (표준편차)	3.52 (.76)	4.13 (.62)	2.91 (1.12)	4.12 (.61)	3.53 (.90)	4.33 (.63)

*p<.05, **p<.01

2. 교육참여동기, 만족도, 참여의도의 관계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변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연구문제1]과 관련하여 참여동기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통제변인으로 성별(남성=1)과 연령을 사용하였다.

표 4. 참여동기와 만족도

독립변인	종속변인	학습구성원 만족		교육내용 만족	
		β	<i>t</i>	β	<i>t</i>
통제변인	성별(남성=1)	.129	1,541	.039	.420
	연령	.074	.747	-.097	-.883
참여동기	활동지향동기	.457	4.981***	.248	2.453*
	학습지향동기	.004	.040	.192	1.973
	목표지향동기	.126	1,288	-.195	-1,809
F(df1, df2)		F(2, 118)=9,411***		F(2, 118)=3,646**	
수정된 R제곱		.260		.099	

*p<.05, **p<.01, ***p<.001.

[연구가설1-1]은 활동지향 참여동기가 학습구성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다변인 회귀분석결과, ‘활동지향동기’는 ‘학습구성원만족’(β=.457, t=4.981, p<.001)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활동지향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학습구성원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가설 1-2]는 활동지향 참여동기가 교육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활동지향동기’는 ‘교육내용만족’(β=.248, t=2.453, p<.05)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활동지향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교육내용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가설 1-3]은 학습지향 참여동기가 학습구성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학습지향동기’는 ‘학습구성원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4, t=.40, n.s.).

[연구가설 1-4]는 학습지향 참여동기가 교육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학습지향동기’는 ‘교육내용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92, t=1.973, p=.051).

[연구가설 1-5]과 [연구가설 1-6]은 각각 목표지향 참여동기가 학습구성원 만족도와 교육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목표지향동기’는 ‘학습구성원만족’(β=.126, t=1.288, n.s.)과 ‘교육내용만족도’(β=-.195, t=-1.809, n.s.)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표 5. 참여동기, 만족도와 참여지속의도

종속변인/독립변인		참여지속의도	
		β	t
통제변인	성별(남성=1)	-.060	-.802
	연령	.000	.000
참여동기	활동지향동기	.030	.330
	학습지향동기	.118	1.484
	목표지향동기	-.121	-1.365
만족도	교육내용만족도	.530	6.913***
	학습구성원만족도	.185	2.185*
F(df1, df2)		F(7, 113)=13.387***	
수정된 R제곱		.419	

*p<.05, **p<.01, ***p<.001

[연구가설 2-1]과 관련하여 다변인 회귀분석결과, ‘학습구성원만족’은 ‘지속참여의사’(β=.185, t=2.185, p<.05)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구성원 만족도가 높을수록 미디어교육 지속의사가 높아지는 듯하다.

[연구가설 2-2]는 교육내용 만족도가 미디어교육 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다변인 회귀분석결과, ‘교육내용만족’은 ‘지속참여의사’(β=.530, t=6.913, p<.001)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육지속의사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연구가설 채택유무

연구가설	경로	기각
연구가설1-1	활동지향동기 → 교육내용만족	기각
연구가설1-2	활동지향동기 → 학습구성원만족	채택
연구가설1-3	학습지향동기 → 교육내용만족	기각
연구가설1-4	학습지향동기 → 학습구성원만족	채택
연구가설1-5	목표지향동기 → 교육내용만족	기각
연구가설1-6	목표지향동기 → 학습구성원만족	기각
연구가설2-2	교육내용만족 → 참여의도	채택
연구가설2-2	학습구성원만족 → 참여의도	채택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의 의의에 대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교육의 참여동기와 만족도가 미디어교육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밝혔다. 기존의 평생교육분야에 주로 적용되었던 참여동기이론이 미디어교육 분야에도 적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참여동기의 하위 요소와 만족도 하위 요소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김철호(2015)의 연구를 제외한 기존의 연구들이 참여동기의 하위 요소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하나의 변인으로 사용하여 동기요인에 따른 차별적인 영향력을 검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동기의 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만족도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되었다.

셋째, 미디어교육의 참여동기 중에서 활동지향 동기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활동지향동기는 교육내용만족도와 학습구성원만족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육내용만족도와 학습구성원만족도 모두 미디어교육 참여의도를 높였다. 이는 미디어교육의 지속과 관련하여 활동지향동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즉, 여가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새로운 활동을 찾으려는 동기로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교육내용의 만족도와 학습구성원의 만족도를 느낄수록 교육에 참여하려는 의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넷째, 학습지향동기가 교육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못하였지만, p=.051로 상당히 근접하였다. 이는 학습지향동기가 교육내용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목표지향동기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목표지향동기의 평균값이 낮고 2개의 항목으로 측정된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만족도에 목표수행만족도가 있었다면, 다른 결과를 도출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동기와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무적인 의의도 지니며, 미디어교육 참여를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다. 성인들의 미디어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활동지향 동기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습구성원의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할 때, 새로운 사람을 사귄 수 있고 일상생활을 벗어나 흥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에도 동료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커리큘럼과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교육참여 지속의사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기관과 차별

화된 교육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후속 연구에서는 교육만족도의 다른 차원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교육내용과 학습구성원 만족도 이외에도 강사만족도, 시설만족도 등 다른 유형의 만족도도 교육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참여동기의 유형도 세분화해서 살펴볼 수 있다. 학습지향, 활동성지향, 목표지향 동기 이외에도 오락동기 등 보다 세부적인 동기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응답자들이 어떤 유형의 미디어 교육에 참여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후속연구는 교육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참여동기, 만족도, 교육지속의사의 관계도 살펴보아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김기태, *미디어교육의 이해와 활용*,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2] 홍종배, “미디어교육,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 미디어교육내용 개발의 원리와 방향,” 한국소통학회 가을 학술대회, pp.1-11, 2005.

[3] 주형일, 강길호, 김경아, 서용순, 홍종배, *미디어교육의 원리와 방법*, 영남대학교출판부, 2008.

[4] 시청자미디어센터백서, 시청자미디어재단, 2014.

[5] 김용호, 정경순, 남연주,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참여의 차별적 효과 연구: 청소년의 성격유형과 교육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51권, 제2호, pp.95-127, 2012.

[6] 권금상, “평생교육을 위한 미디어교육의 활용,” 교육연구논총, 제28권, 제1호, pp.45-61, 2007.

[7] 이육호,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의 영화교육 전망: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의 <시민단편드라마제작교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영화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43-52, 2010.5.

[8] C. O. Houle, *The inquiring mind*,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1.

[9] 서순식, 박종선, “정보윤리 강사교육에서 개인의

배경 특성이 교육참여동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업교육연구, 제9권, 제2호, pp.157-175, 2007.

[10] 김영미, 한상훈, “성인학습자의 자아개념, 참여동기 및 학습참여도와 평생학습성과의 구조적 분석,” 교육연구논총, 제33권, 제2호, pp.123-143, 2012.

[11] 김종식, 임왕규, “노인평생교육 참여동기가 교육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5호, pp.179-189, 2014.

[12] 변주성, “평생교육기관 도자교육 프로그램의 학습성과 영향요인 구조분석,”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제28권, pp.81-108, 2011.

[13] 김나영, 강정은, “여성 평생교육참가자의 참여동기, 기관의 지원, 만족도, 학습성과 간의 관계 규명,”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2호, pp.958-968, 2011.

[14] 김철호,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동기와 관여가 평생교육 학습자의 만족, 지속수강의도, 권유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6호, pp.575-588, 2015.

[15] L. Hu and P. M. Bentler,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6, pp.1-55, 1999.

[16] 이학식, 임지훈,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20.0*, 집현재, 2013.

저 자 소 개

양 문 희(Moonhee Yang)

정희원



- 1996년 2월 : 숙명여대 정치외교학(학사)
- 1998년 8월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석사)
- 2004년 8월 : University of Alabama(박사)
- 2008년 8월 ~ 현재 :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 미디어 효과이론, 광고심리, PPL효과